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확대 실시

간호사 등 전담팀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모바일 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7월부터 확대 운영된다. 이로써 많은 국민들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에게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7월 2일부터 기존 34개의 2배 규모인 70개 보건소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이용자 규모도 2017년 4080명에서 올해 8000명으로 늘어난다.

올해는 사업 참여 보건소에서 관내 지역주민 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을 받으며 보건소별 평균 120명, 전국 총 8000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서비스는 건강검진 결과 질환 전 단계로 혈압·혈당이 높거나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

을 1개 이상 갖고 있는 만 20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선정 시 연령·소득 제한은 없으나, 건강위험요인이 많아 시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한 사람 또는 건강취약계층인 경우 우선 선정 가능하다.

이용자는 보건소 방문과 상담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한 후 모바일 앱으로 개선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받게 된다. 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에 대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소 전담팀으로부터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받는다. 건강, 운동, 영양 등에 관한 전문상담도 주 1회씩 24주 동안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 강화를 위해 서비스 개시 시점에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했다. 모바일 앱도 사용자 편의와 활용도를 높이고 건강관리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재용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과 만성질환 위험요소 감소 등에 효과가 검증된 수요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 4080명 중 3824명(93.7%)이 서비스 제공기간인 6개월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의 건강관리 효과와 만족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53.5%(2045명)는 식습관 변화 및 운동 실천 등 건강행태가 1개 이상 개선됐다. 63.0%(2410명)는 본인이 갖고 있던 만성질환 위험요인 중 1개 이상이 위험수치에서 정상으로 돌아왔다. 23.7%(907명)는 위험요인을 모두 해소해 건강관 판정을 받았다. 서비스 만족도는 100점 만점 중 89.3점으로 나타나 이용자 대부분이 건강관리에 효과적이고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양성평등주간 “평등을 일상으로”

차별과 폭력 없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평등을 일상으로!’ 주제로 제23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7월 5일 개최했다.

올해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은 누구도 차별과 폭력에 아파하지 않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아 ‘평등을 일상으로!’ 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을 향해 걸어왔지만 여전히 장벽은 높다”면서 “여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해 유리천장 깨기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이자 여성가족부의 공식 홍보 브랜드를 ‘평등을 일상으로!’로 정했다”면서 “일상 속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하고 누구나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계기로 일상생활 속 성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양성평등의식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영상 ‘혼자가

아닌, 함께 갑니다’가 상영됐다.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는 남성모임 ‘성평등 보이소’ 5개 지역 대표가 ‘위드유 다짐’을 발표했다. 뮤지컬 ‘레드북’ 중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랑’ 공연이 펼쳐졌다. 레드북은 매우 보수적인 시대였던 19세기 영국에서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여성 안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성인권 향상과 양성평등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1년 중 1주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 개정된 것으로,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신경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 법 개정을 이뤄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중앙정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시민 참여 캠페인, 토론회, 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최수정 기자 schoi@



간호조직체계·문화혁신
배지 달기 캠페인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화성중앙종합병원 간호부(간호부장 허미양)에서 참여했다. 사진은 5명동 간호사들.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한양류마디병원 간호부(간호과장 전서연)에서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 ‘통합콜센터’ 명칭 공모

대한간호협회가 새롭게 오픈하는 ‘통합콜센터’의 명칭을 7월 15일(일)까지 공모한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원 고충상담과 면허신고, 일반상담 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친근한 이미지와 함께 정체성을 담아낼 통합콜센터 명칭을 공모한다.

공모전에는 간호협회 등록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jsson@koreanurse.or.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작 가운데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참가자 가운데 2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상품권을 증정한다.

당선작은 7월 25일(수) 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여교사’ ‘여직원’ ‘힘쓰는 일은 남자가’

일상생활 속 성차별 언어표현 개선 추진

‘여교사’ ‘여직원’과 같이 불필요하게 성별을 강조하거나 ‘힘쓰는 일은 남자가 해야지’와 같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일상 속 성차별적 언어표현이 개선된다.

먼저 일상 속에서 어떤 성차별 언어표현이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릴레이 집담회, 설문조사,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릴레이 집담회에서는 청소년, 청년 등과 함께 일상에서 경험한 성차별 언어표현과 이를 배우는 경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설문조사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9~10월 실시되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거나 접촉한 경험 등에 관한 조사한다.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성차별 언어표현을 발굴하고, 이를 대체할 표현을 찾아나가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차별 언어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매체와 1인 미디어 등 매체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양성평등 모니터링단을 통해 대중매체 대상 모니터링을 지속적

으로 실시하고,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개정해 올해 9~10월 보급한다. ‘1인 미디어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어학사전 제휴사의 어학사전 편찬자를 위한 가이드를 제작한다.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 국제학술회의’에서 논의된 국제 사례 등을 바탕으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특정 성에 대한 혐오와 비난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언어를 매개로 성차별적 인식이 표현·확산되는 경로를 면밀히 파악하고, 실질적 정책방안을 마련해 성차별 구조와 인식이 바뀌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정 기자 schoi@



프랑스 최초의 BB크림 누가 만들었을까?

뷰티 본고장 프랑스에서 최고의 인기를 끈 에르보리앙 BB·CC 크림을 ‘한국콜마’가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구요? 그럴 수밖에요. 화장품 제조사는 당신의 눈에 띄지 않는 화장품 뒷면에 있으니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화장품을 연구 제조하는 글로벌 NO.1 화장품 제조사 ‘한국콜마’입니다.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화장품 품질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좋은 화장품 고르는 방법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CGMP 1호·2호 한국콜마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관)